

# 일본의 내셔널리즘과 일본현대문학자의 대응\*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와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를 중심으로—

조미경\*\*

cho9631cho@naver.com

## Contents

1. 일본현대문학의 수용과 정치성-문제제기
2. 1990년대 이후 일본사회의 우경화와 그 특징
3. 일본사회의 우경화에 대한 문학자의 저항
4. 일본사회의 우경화에 대한 문학자의 협력과 논리
5. 결론—일본의 내셔널리즘과 일본현대문학자의 대응

## Abstract

本論文は、1990年代以降急激に強まっている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の高揚に対して日本現代文学者がいかなる役割を果たしており、いかに抵抗しているのか、また自分の政治的信念をいかに貫いているのか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この考察をとおして、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の高揚と右傾化に対して日本現代文学者が対応する諸相を明らかにすることで、1990年代以降の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に対する多面的考察はもちろん、日本内で1980年代以降その議論が薄くなった現実政治と文学の関係を把握しようとした。

本論文ではまず1990年代以降日本におけるナショナリズムの高揚と右傾化の理由がどこにあるのか、その特徴は何なのかについて把握した。日本におけるナショナリズムの高揚は、社会主義の崩壊による冷戦の終結、湾岸戦争をきっかけとする国際貢献論と憲法改正の必要性の台頭などといった、国際的状況の急激な変化に対応する過程で触発されたと言える。そのような状況が1990年代のいわゆる「失われた十年」として象徴される経済の不況によって拡大されたといえる。このような議論に基づき、次にはこのナショナリズムの高揚と右傾化に対して日本の現代作家はいかに対応したのかをノベル賞受賞作家の大江健三郎と『太陽の季節』の作家である石原眞太郎を中心に考察した。

いわゆる戦後民主主義者を自負する大江健三郎の場合はひたすら戦前の天皇性を批判し、日本帝国主義を合理化しようとする一体の動きに対しても批判的スタンスを取っている。大江健三郎が日本におけるナショナリズムの高揚と右傾化に抵抗しようとした際、その土台となったのが日本の戦争責任という歴史的認識を強調するため制定された平和憲法およ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37-A00188)

\*\*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

び戦後民主主義の精神である。そして、彼が右傾化に対応する方法とは、市民たちの積極的参加を呼び起こす市民連帯であった。また、本論文では大江健三郎がアジアにおけるナショナリズムを乗り越える方法として東アジアの文化共同体を提示し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る。

一方、人気小説家、映画俳優、映画監督、国会議員、東京都知事など様々な経歴の持ち主である石原慎太郎は大江健三郎とは異なり日本の右傾化の動きを積極的に推し進める立場に立っていた。彼は過去日本の植民地主義を美化し隣国のマイナ斯的イメージを強調する。ところで、このような石原の認識は過去帝国主義者のイデオロギーを共有する見方であり、ひいてはいつも強い日本を主張する彼の論調と相まって排外主義を助長させることである。特に、石原がこのような右翼的態度にもかかわらず、日本で大衆の人気を維持しているのは1990年代の経済的不況による時代的雰囲気と密接な関係があることも考察した。

Key Words : ナショナリズム、日本現代文学、大江健三郎、石原慎太郎

## 1. 일본현대문학의 수용과 정치성-문제제기

최근 들어 한국에서 일본현대소설이 한국의 수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출판계에 있어서도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에서 이러한 현상을 각종 미디어는 일본현대문학의 ‘일류’(日流)현상으로 파악하여 대대적인 보도를 해왔다.<sup>1)</sup> 한국에서 일본현대문학이 대단히 유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상은 단지 한국의 미디어뿐만 아니라 일본의 신문 등에서도 크게 다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한류의 모국에서 일류가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기사를 실어 한국사회에서 일본현대소설의 대히트를 크게 보도하고 있다.<sup>2)</sup>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일본의 현대소설은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 가네시로 가즈키(金城一紀), 요시모토 바나나(吉本ばなな), 아사다 지로(淺田次

1) 최근의 신문기사만 보더라도 『조선일보』의 『韓流, 일본 대중문화에 빨대 꽂고 버틸 수 있나』(2007.3.28), 『한국일보』의 『하루키 현상』(2007.3.21), 잡지 『한경 비즈니스』의 『진화하는 일본소설』(2007.3.12, 제587호), 『문화일보』의 『日流 거침없이 분다』(2007.3.1), 『매일신문』의 『동남아는 韓流, 국내서는 日流』(2007. 2.10) 등 수많은 기사들이 이러한 현상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사에서 ‘한류’, ‘일류’라는 말이 보여주고 있듯이 문화상품의 수출, 문화적 영향 등 상업 내셔널리즘적 인식이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2) 『朝日新聞』, 2007.3.31

郎), 에쿠니 가오리(江國香織), 오쿠다 히데오(奥田英朗) 등 수많은 작가들의 작품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가들 중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일본현대소설 선풍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한 작가는 무라카미 하루키라 할 수 있다.<sup>3)</sup>

한국에서 일본작가들이 이렇게 유행하는 이유로는 일반적으로 가벼운 감수성과 무정치성, 탐정물, 오락성 등 다양한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일체의 정치성과 무거운 사상성을 배제하고 가벼운 감수성을 잘 표현해낸 것으로 간주되는 이들의 문학은 단지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외연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해변의 카프카(海辺のカフカ)』에 대해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필리핀뿐만 아니라, 일찍이 대일본제국과 그 상비군이 행했던 식민지주의적인 제국주의적인 침략전쟁을 둘러싼 기억을 환기하는 에피소드는, 『해변의 카프카』라는 소설전체에 수많은 깔려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공유된, 사회적인 집합의 기억에 작동시켜, 그 기억을 잠시 동안만이라도 독자에게 상기시키고, 그러나 그 직후에 이 모든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용인하고, 상기된 기억 그 자체를 소거시킨다는 점에 『해변의 카프카』라는 소설 텍스트의 운동의 기본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수행했던 침략전쟁 하의 조직적 ‘강간’의 기억을 잠시 동안 상기하고, 다음 순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해변의 카프카』의 소설 텍스트 운동은 ‘종군위안부’ 문제를 없었던 것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치유>를 가져다 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sup>4)</sup>

이러한 지적은 사상보다는 일상적인 감수성에 호소하기에 한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듯이 보이는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조차도 일본의 역사인식, 전쟁책임 문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재

3) 한국에서는 일본현대문학의 급격한 인기에도 불구하고 이의 선봉적 역할을 담당한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한 심포지엄·학회가 열려 이들 문학에 대한 다양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일본근대문학회 개최의 학술대회 『무라카미 하루키를 논한다』(2007.4.7)와 고려대·도쿄대 공동주최의 『동아시아에서 무라카미 하루키를 읽다』(2007.3.30) 국제학술심포지엄을 들 수 있다.

4) 小森陽一 『기억의 소거와 역사인식』(고려대·동경대 합동세미나 발표집, 2007.3), 아울러 고모리 요이치의 해변의 카프카에 대한 비판은 小森陽一 『村上春樹論－『海辺のカフカ』を精読する』(平凡社新書, 2006) 참고.

일본 우경화의 첨단에 서 있는 정치가, 나아가 우익들이 실제로 과거의 전쟁책임의 기억을 소거하고자 하는 역사인식의 태도가 무리카미 하루키의 작품에 ‘제국주의적인 침략전쟁을 둘러싼 기억’을 ‘소거’한다는 형태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본현대문학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회적 의식과 역사적 콘텍스트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1890년대 이래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일본 사회의 민족주의의 고양과 우경화의 움직임 속에서 일본현대작가는 지식인으로서 자기 발언과 행동을 통해 이러한 움직임에 저항하거나 또는 적극적 협조의 형태로 대응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역사적 사실로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걸쳐 일본이 제국주의적 식민주의의 길에 들어섰을 때, 후타바테이 시메이(二葉亭四迷)나 요사노 뎃칸(与謝野鉄幹), 아니면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나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 등 수많은 문학자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공감, 협조하거나 저항, 반발하며 유무형의 정치적 행위와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 시대와는 다른 형태라 하더라도,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서도 일본현대문학자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치적·사상적 신념에 토대하여 정치적 주장을 하거나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한 다양한 행위를 시도해 왔다.

본 연구는 현대일본문학자들이 1990년대 이후 일본 내의 내셔널리즘의 고양과 우경화의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의 문학세계와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자세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고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전후(戰後) 일본의 민족주의와 우경화의 흐름이 단지 정치적 현상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음을 파악하고자 한다.

## 2. 1990년대 이후 일본사회의 우경화와 그 특징

현재 1980년대 중후반부터 언급되기 시작하였던 일본사회의 우경화<sup>5)</sup> 흐름은

5) 일본의 우익이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정의내리기 힘들지만 다음과 같은 정의는 우익의 일반

‘1990년대 이후 일본 사회 전체의 우경화로 급진전되고’<sup>6)</sup>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사태는 이제 한일관계나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 즉, 일본 정치가의 과거역사에 대한 합리화와 새역모 등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 국기·국가법의 제정, 일본총리의 야스쿠니(靖国)신사 참배, 교육기본법의 개정 움직임, 평화헌법의 개정 움직임 등, 그 사례들을 하나하나 열거할 필요도 없이 우경화는 현재 일본의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으며 이에 동조하는 일본국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과거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 피식민지 국민의 동의 하에 진행되었다거나,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공식화하려는 등, 일본제국주의의 합리화, 일본의 팽창주의에 대한 의도를 표면화, 정책화하는데까지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민족주의의 고양과 우경화의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침략전쟁과 제국주의 역사를 합리화하는 ‘위험한 역사관’에 토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sup>7)</sup>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실제 동아시아 각국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자아낼 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대두된 신국가주의적인 역사수정주의는 시대 상황에 막연히 불만을 높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수용층을 찾아내면서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있다.’<sup>8)</sup> 그러면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일본에서 내셔널리즘이 고양되고 이러한 우경화의 움직임이 전면화하는 이유와 배경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다음의 글이 그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우익들은 일본의 국체, 즉 천황제를 국가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또한 일본문화 속으로 전통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고래의 풍습과 도덕을 일본의 현실정치에서 실현시켜야 할 이상적인 상황으로 본다. 일본의 우익사상은 일본의 국체와 풍습, 도덕을 보호·유지하고 선양하는 이념에 입각한 사상이며, 우익세력이란 이러한 사상을 현실정치에 실천하고자 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김호섭 외(2000) 『일본우익연구』, 도서출판 중심, p.21

- 6) 김태기(2007) 『日本 右翼의 思想과 活動에 관한 史的 考察』 『한일민족문제연구』13호, 한일민족문제학회, p.52
- 7) 나카하라 게이지(2001) 『『국민의 역사』로 본 우익의 위험한 역사관』(『철저비판 일본우익의 역사관과 이데올로기』, 바다출판사)에서는 일본 우익의 잘못된 역사관을 7가지로 분류하여 비판하고 있다.
- 8) 高橋哲哉編(2002) 『<歴史認識>論争』, 作品社, p.2

이 사이에 일본은 경제정체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일본의 국력은 쇠퇴하여 세계에 있어서의 지위도 역할도 후퇴하고 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밀려들고 있는데 일본은 그 힘을 활용하여 재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강탈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이 격화되고 있었다. (중략) 이곳으로부터 생겨난 포퓰리즘적 감정과 밖의 것보다 안의 것이 우선이라는 내향 심리가 섞여 아이덴티티 정치가 불출하고 있다. 그것은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가 말한(그리고 주로 중국계 주민을 염두에 둔 말인) 『삼국인』이라는 표현에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일본 속에 과거를 미화하는 움직임을 가속시키거나 군국주의로의 경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닐 것이다.<sup>9)</sup>

위의 인용문을 보면 일본의 우경화의 경향은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으로 여겨지고 있는 1990년대의 경제불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경향이 ‘과거’의 ‘미화’와 ‘군국주의로의 경사’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음을 밝히고는 있지만 적어도 이 당시 경제불황으로 야기된 포퓰리즘과 일본의 내향의식은 전후에도 일본 내에서 면면히 이어 내려온 민족주의와 우익들의 주장이 당시 일본국민들을 묶어내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1990년대 경제적 불황은 일본 우익들의 주장이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커다란 요인이 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태의 변화는 1980년대에까지 소급해 보면 국제 정치적, 외교적 상황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국제적 상황의 변화가 바로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에 의한 ‘냉전의 종결’, ‘미국과 일본의 경제마찰’을 계기로 불기 시작한 ‘일본의 독자적인 외교적 행보’, ‘1991년의 걸프전쟁’을 계기로 한 ‘국제공헌론’과 ‘헌법개정 필요성’<sup>10)</sup>의 제기 등이 바로 그것이며, 이는 일본의 우경화라는 시대적 전환을 초래하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일본 우경화의 계기점은 일본 국내사정의 급변이나 그 필요성보다는 일본 바깥에서 일어난 국제적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일본이 대응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의

9) 船橋洋一(2001) 『いま、歴史問題にどう取り組むか』岩波書店、『はじめに』 p.13

10) 김태기(2007) 『日本 右翼의 思想과 活動에 관한 史的 考察』, 전계서, pp.89~90

내셔널리즘의 부상, 혹은 우경화는 국제적인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일본 내 제 세력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극을 받아서 나아가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으로 상징되는 경제적 정체에 의해 증폭, 확대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sup>11)</sup>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 10, 20년 사이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일본문학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과연 일본현대문학자들은 이러한 정치적 지형의 변화에 대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였던 것일까?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 속에서 걸프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1991년 평론가 가라카니 고진(柄谷行人), 학자인 아사다 아키라(淺田彰), 소설가 다카하시 겐이치로(高橋源一郎), 소설가이자 텔런트인 이토 세이코(伊藤正幸), 다자이 오사무(太宰治)의 차녀로 소설가인 쓰시마 유코(津島 佑子), 소설가 나카가미 겐지(中上健治), 소설가 시마다 마사히코(島田雅彦), 학자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 작가이자 정치가인 다나카 야스오(田中康夫) 등 수많은 문학자, 지식인, 문화인들이 일본 자위대의 전쟁 파견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일본의 우경화의 심화와 더불어 헌법개정 움직임이 활발하던 2004년도에는 작가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 비평가 가토 슈이치(加藤周一), 작가 이노우에 히사시(井上ひさし), 작가 오다 마코토(小田実) 도쿄(東京)대학 교수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 등이 평화헌법의 개헌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평화헌법 호헌 모임인 <9조의 모임(九条の会)>을 결성하게 되는데, 이 조직은 전국적 조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반대운동을 고려해보면 1990년 이후 일본 내 내셔널리즘의 고양, 우경화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문학자, 지식인, 문화인들이 이러한 우경화에 부응하는 제도적, 행정적 움직임에 반대의 가치를 분명히 하며 반전(反戰)과 평화주의를 내걸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일본사회의 우경화는 단지 정치 레벨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문학자, 문화인들도 그 소용돌이 속에 흡입시킨 시대의 대 격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사회의 우경화에 대한 문학자들의 대응양상과 논리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11) 김태기는 이 이외에도 일본 정치의 ‘보수 우경화’와 이를 ‘지지하는 일본국민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보수주의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서의 일본내 혁신세력’의 ‘쇠퇴’, ‘일본정부의 사죄 외교’에 대한 ‘반발’, ‘청년층’의 ‘우경’ ‘신봉’, ‘보편적인 가치관보다 국가주의가 우선할 수 있는 일본적 특성’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태기(2006) 『日本の保守右傾化와 韓国』 『한일민족문제연구』제11호, 한일민족문제학회, pp.306~307

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 3. 일본사회의 우경화에 대한 문학자의 저항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를 중심으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서 일본현대문학자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치적·사상적 신념에 토대하여 정치적 주장을 하거나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 갔다. 그렇다면 현대일본문학자들이 일본사회의 우경화 경향에 대응·저항하기 위한 논리적·사상적 토대는 무엇인가? 나아가 그들의 논리적·사상적 토대를 실현시키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저항해 갔는가? 현대일본문학자들 중에서도 일본사회의 우경화와 정치적 제도화에 대한 저항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는 작가가 199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이다. 오에 겐자부로는 『애매한 일본의 나(あいまいな日本の私)』라는 강연제목으로 유명한, 노벨문학상 수상식 강연에서

「전후문학자」가 당사자로서 표현한 대로 커다란 비참과 괴로움 속에서 재출발 하였습니다. 선생으로 향하는 일본인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와 부전(不戰)의 맹세이며 그것이 새로운 일본인의 근본 모럴이었습니다.<sup>12)</sup>

라며 자신 스스로가 전후 민주주의자였음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에는 자신의 ‘전후문학’ 자체가 전후의 ‘민주주의’와 ‘부전의 맹세’에 근거하고 있음을 표명하는 주장이며 그 토대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른바 평화헌법 제9조에 명시된 정신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더라도 오에 겐자부로는 1990년대 이후의 일본사회의 우경화 경향—그 특징은 앞서서도 이미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과거 침략주의 역사

12) 大江健三郎(1995) 『あいまいな日本の私』 『あいまいな日本の私』、岩波書店、p.9



를 합리화하려는 역사인식과 헌법개헌을 비롯하여 내셔널리즘적 경향을 현실 제도에 반영하려는 일련의 법제정이라 할 수 있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오에 겐자부로(오에 겐자부로는 가장 최근의 방한(訪韓)인 2006년 5월 강연에서 현재 일본사회의 경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특히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과 중국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식민주주의와 군국주의에 의해 커다란 피해를 입었던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대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보이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역사를 인식한다는 것은 과거에 대해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를 바르게 응시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sup>13)</sup>

일본의 헌법 제9조에는 전쟁의 방기(放棄)라는 조항이 있어서 전쟁을 수행하지 않으며 전쟁을 위한 군비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제9조의 제1항, 군비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2항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은 거대한 군대를 보유하고 군비도 비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볼 때 전쟁은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전쟁터에 자위대 파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9조란 유명무실하다고 할까, 헌법의 규범, 모델이 있으면서도 그 현실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일본인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저는 헌법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 나라를 되돌려야 한다고, 헌법 위반의 현실을 조금씩 돌이켜 보며 진실로 평화에 대하여 고민하는 국가를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후략)<sup>14)</sup>

위의 글 중 첫 번째의 글은 오에 겐자부와 김우창의 대담 중 오에의 기초 발언이며 두 번째의 글은 오에가 고려대학교에서 행한 강연내용의 일부이다. 두 글은 오에의 평소 소신인 평화헌법에 대한 적극적 지지, 과거 군국주의에 대한 철저한 반성, 일본의 극우 정치인에 대한 철저한 비판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5)</sup> 그런데 첫 번째 글에서 ‘역사를 인식한다는 것은 과거에 대해서

13) 오에 겐자부로·김우창 대담(2006) 『동아시아의 갈등과 반목, 문화공동체 구축만이 해답이다』 『대산문화』 Vol.20, p.20

14) 오에 겐자부로(2007) 『나의 문학과 지난 60년』 『日本研究』 제7집, pp.15~16

15) 전후민주주의와 평화헌법을 적극 옹호하는 오에는 일본 군국주의의 기반이 되었던 천황제의 절대적 권위에 대해서도 일찍이부터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전쟁 중에 ‘이 신으로서

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를 바르게 응시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은 오에가 가지고 있는 역사인식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에는 대담에서 호헌 모임인 '9조의 모임'(九条の会)의 활동을 소개하고 현재의 내셔널리즘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시민들의 연대와 동아시아 문화공동체'<sup>16)</sup>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편 오에는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라는 말로 제시되어 있는 이웃국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항상 다음과 같은 인식을 견지하려고 하였다.

일본이 새로운 아시아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다면, 지나간 시대의 역사적인 실수를 청산하고 도덕적인 순결성을 보장하지 않는 한, 아시아의 미래에 참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한 보장이 없다면 일본은 전세계의 미래에 참가해 새로운 아시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sup>17)</sup>

오에가 지적하고 있는 '새로운 아시아 구상'이란 역시 '지나간 시대의 역사적인 실수' 즉 과거 침략주의 역사에 대한 명확한 반성과 청산에 토대하는 것이다. 이 올바른 역사인식과 역사에 대한 반성이야말로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의 토대이며 '전세계의 미래에 참가'하는 단초라는 것이 오에의 주장인데 이러한 주장은 바로 일본 우익에 대한 비판논리와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에가 일본우익들의 역사인식 비판과 동아시아의 내셔널리즘을 극복하고자 할 때, 그 논리적·사상적 토대는 명확한 과거 역사인식과 평화헌법 및 전후민주주의 정신이며 일본사회의 우경화에 저항해 가는 구체적 방식으로 시민들에 의한 적극적 연대를 촉구하고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일본의 우경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에는 단지 문학가, 비평자라는 위치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연대를 통해 이에 대항하고자

의 천황이 우리 어린이들의 매일의 생활에 리얼한 생동감을 가진 위협마저 느끼게 했다(大江健三郎(1996) 『天皇が人間の声で話した日』 『日本の「私」からの手紙』, 岩波書店, p.28)는 문구에서도 이러한 사과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16) 『동아시아의 갈등과 반목, 문화공동체 구축만이 해답이다』, p.23

17) 大江健三郎 『希望と恐れとともに』 『日本の「私」からの手紙』, p.53

하였다. 즉 일본 문부성이 왜곡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였을 때 시민들에게 강연의 형태로 적극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문학비평가 가토 슈이치(加藤周一), 소설가 이노우에 히사시(井上ひさし), 작가 오다 마코토(小田実) 등이 참여하고 있는 평화헌법 호헌 모임인 <9조의 모임(九条の会)><sup>18)</sup>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일본의 군비강화,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 등, 일본의 팽창주의에 반대의 기치를 분명히 하였다. 또한 평화 헌법에 토대하여 전후 일본 민주주의 교육의 근간이 되어 왔던 ‘교육기본법’이 국가주의적인 문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려는 경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해 왔다.

따라서 오에 겐자부로가 일본의 내셔널리즘과 우경화에 저항하고자 하는 토대는 바로 일본의 전쟁책임이라는 역사적 인식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만들어진 평화헌법 정신에 토대해 있으며, 전후민주주의에 입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대응의 방식은 바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시민 연대를 통한 문제해결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 역사에 대한 분명한 책임의식—오에는 사실 일본 내에서 누구도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늘 비판해 왔다.—이 이러한 의식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할 수 있다.

#### 4. 일본사회의 우경화에 대한 문학자의 협력과 논리

#####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를 중심으로

일본 현대문학자 중 이시하라 신타로만큼 다양한 변모와 매스미디어의 조명을 받은 작가도 드물 것이다. 예를 들면, 1952년 히토쓰바시(一橋)대학에서 사회학, 경제학을 수학, 『태양의 계절』(太陽の季節, 1955)로 제1회 신인문학상과 1956년 아쿠다가와상(芥川賞)을 수상, 신문·주간지 등의 각광, 영화 출연 및 감독으로 영화제작, 1968년 국회의원선거에 자민당으로 입후보하여 당선, 환경부 장관 등 역임, 1999년 이후 도쿄도(東京都) 지사 연속 3번 당선 등이 이에

18) 오에 겐자부로와 ‘9조의 모임’에 대해서는 小森陽一 『ことばの力 平和の力』(かもがわ出版, 2006, pp.177~180)에 상세하게 나와 있다.

해당한다.

이시하라는 위에서 살펴본 오에 겐자부로와 거의 동시대 작가라 할 수 있으며 실제 일본에서 미일안보조약 투쟁이 격화하는 시기였던 1960년, 오에 겐자부로, 에토 준(江藤淳) 등과 더불어 <젊은 일본의 모임(若い日本の会)>을 만들어 시국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고 정치적 주장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오에 겐자부로 등과 사상적 교류를 행할 기회와 공통적인 접점이 있었던 듯이 보이지만 그의 작품 활동은 초기부터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예를 들면 당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태양의 계절』이 ‘기성도덕에 대한 청년의 거친 반항의 정념’<sup>19)</sup>을 표현하여 당시의 젊은이들에게 ‘태양족’이라는 풍속의 유행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르주아적 하이칼라 청년’을 주인공으로 하여 ‘개방적이고 무윤리(無倫理)적인 스포츠 청년과 부르주아 딸과의 직정(直情)적인 행동과 성애의 이야기’<sup>20)</sup>인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 대한 평가는 ‘전후파나 제3의 신인이 각각 전쟁체험을 무겁게 짊어지고 있었던 데 대해 1932년에 태어나 패전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이시하라가 전중 전후의 암울함과 완전히 절연한 작품’<sup>21)</sup>라는 말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이시하라의 대표작 『태양의 계절』은 그것이 일본 내에서 다양한 논쟁과 대히트를 기록하였다고는 하더라도 일본의 패전 이후 어떠한 형태로든 전쟁 체험이나 전쟁의 상처 등 전쟁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였던 이전 전후파 작가와는 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작품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도리이 구니오(鳥居邦郎)가 ‘이시하라(石原)가 『태양의 계절』에 의해 전후파와의 단절을 제시한데 비해 그보다 젊은 오에가 오히려 큰 줄거리에서는 전후문학을 계속시키는 존재였다’<sup>22)</sup>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사회전체로서 전후는 끝났다는 감각’(p.106)이 크게 확장되는 분위기 속에서 ‘전중 전후의 암울함과 완전히 절연한 작품’을 쓴 이시하라와 이를 현재의 문제로서 ‘전후문학을 계속시키는 존재’인 오에의 작품 활동의 차이는

19) 紅野敏郎、三好行雄外編(1976) 『昭和の文学』、有斐閣、p.295

20) 古林尚・佐藤勝編(1978) 『戦後の文学』、有斐閣選書、p.107

21) 古林尚・佐藤勝編、상계서、p.107

22) 古林尚・佐藤勝編、상계서、p.108

마치 거의 동시기에 출현한 이 두 사람의 역사인식 및 1990년대의 일본사회 우경화에 대한 견해 차이를 그대로 예고하고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시하라 신타로는 1950년대 문학적 출발뿐만 아니라 앞 장에서 고찰한 오에 겐자부로와 대조적으로 일본의 민족주의와 우경화 흐름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나아가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쟁 중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한국(인)이나 중국(인) 등 주변국에 대해 차별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가치 비하하며 나아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에서 만든 왜곡 역사교과서가 도쿄의 각 학교에 채택될 수 있도록 다대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시하라 신타로가 한국에서 우익적 인사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이른바 ‘제3국인’ 발언 때부터라 할 수 있다. 이 발언은 2000년 4월 육상자위대의 부대창설 기념식에서 일본 내에서 3국인과 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경고였는데 이 3국인은 바로 아시아, 특히 한국이나 중국인들을 부르는 차별용어였던 셈이다. 이러한 차별용어의 사용은 무엇보다 ‘그 근간은 역사인식에서 오는 문제’<sup>23)</sup>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시하라가 일본의 민족주의를 조장하는 우익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은 이미 오래 전부터 행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생각이 노골적으로 표현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89년에 발간된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光文社, 1989)부터라 할 수 있다.<sup>24)</sup> 이 이후 이시하라는 ‘제3국인’에서 볼 수 있듯이 근린국민에 대한 비하나 혐오발언, 평화헌법에 대한 문제제기, 일본제국주의의 과거역사에 대한 찬미, 야스쿠니(靖国)신사 참배 문제, 강한 일본에 대한 발언, 역사왜곡 교과서에 대한 적극적 지지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일본 민족주의를 획책하거나 우익적 행동의 전면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면 이시하라의 민족주의의 바탕이 되는 사상은 무엇인가?

이시하라의 이러한 발언과 주장의 바탕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주장이 2004년 패전기념일을 며칠 앞두고 『산케이신문(産経新聞)』에 게재한 다음 기

23) 工藤美代子(2006) 『石原慎太郎の連隊旗』、ワック株式会社、p.110

24) 이 책뿐만 아니라 이시하라 신타로의 이른바 『No』로 시작되는 타이틀의 저서는 이 이외에도 『宣戦布告 『No』と言える日本経済』(光文社, 1998), 『それでも『No』と言える日本』(光文社, 1990), 『断固 『No』と言える日本』(光文社, 1991) 등이 있다.

사를 통해 알 수 있다.

패전으로부터 59년째의 8월 15일이 멀지 않았다. (중략) 항복조인 다음날 맥아더에 의한 사실을 왜곡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라는 일방적 선언(중략)승자로부터 주어진 비뚤어진 헌법(중략)나는 올해도 15일에 야스쿠니(靖国)신사에 참배한다. (중략)그리고 저 커다란 전쟁의 대의, 백인에 의한 세계의 식민지 지배의 타파가(중략)일본이 스스로 몸을 바친 그 희생 위에서만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함에 틀림없다. 그 인식이야말로 일본의 진정한 재생으로 연결되어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커다란 작업을 위해 패전 60주년인 내년에야 말로 8월 15일에 천황폐하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시기를 숙원한다.<sup>25)</sup>

이 글은 이시하라의 전쟁과 역사에 대한 인식, 평화헌법에 대한 인식, 천황에 대한 인식,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태평양 전쟁이 바로 ‘백인에 의한 세계의 식민지 지배의 타파’에 있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심지어 태평양전쟁 종결도 일본이 무조건 항복이라는 결론도 왜곡된 사실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포기를 담고 있는 평화헌법도 단지 승자인 미국에 의해 강요된 ‘비뚤어진’ 헌법에 지나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대표적 정치인답게 천황에 대해서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일본국민 속에 천황 존재의 의미를 재각인시키고 있다. 한편 이러한 이시하라 신타로의 인식은 바로 ‘일본의 진정한 재생’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패전이란 처녀 체험 중에서 매우 쇼크를 받고 생긴 트라우마라는 것을 이제 불식하고 정상의 국가, 정상의 민족으로서 국가라는 것을 혹은 민족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느끼는 기회라는 것이, 월드컵이라든가 북한의 납치문제의 노정이라든가의 형태로 매우 대조적인 사건이지만, 초래된 것은 내년에 이어나가기 위해 일본 그 자체가 재생해 가기 위해 좋은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만<sup>26)</sup>

25) 石原慎太郎 『陛下、お願いいたします』(『産経新聞』、2004.8.2)

26) 石原慎太郎 『2002年12月26日 定例記者会見』(工藤美代子(2006) 『石原慎太郎の連隊旗』、ワック株式会社)、pp.115~116

여기서도 ‘일본’의 ‘재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역시 일본의 재생이란 패전의 상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시하라 신타로에게 있어서 패전의 ‘트라우마’란 가해자로서의 전쟁기억이 아니다. 오히려 패전이라는 역사적 경험, 미국 주도로 제정된 평화헌법, 전쟁의 부정, 군대보유의 금지,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보통의 ‘정상적 국가’가 아니라는 인식이 그의 ‘트라우마’인 셈이다. 이러한 인식은 과거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시각이며, 나아가 항상 강한 일본을 주장하는 그의 주장과 맞물려 배외(排外)주의를 조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회의원 8선, 도쿄도지사 3선이라는 이력이 잘 보여주듯이, 여전히 현재에도 일본에서 대중적 인기가 가장 높은 정치가이며 그의 논리가 일본국민들에게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

이시하라 신타로의 ‘제3국인’ 발언이 ‘상당수의 일본인이 지지를 표명하는 데는 일본인의 보수성향’<sup>27)</sup>이 일조했다는 사실, 즉 극우 인사인 이시하라가 일본에서 대중적 인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3번 연속으로 도쿄도지사에 당선한 사실은 1990년대의 일본사회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앞에서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우경화가 1990년대의 경제적 불황에 의한 포퓰리즘과 내향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였지만 이시하라의 극우적 발언도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나와 확대되었으며 또한 이러한 발언이 포퓰리즘의 경향에 편승하여 일본국민들을 하나로 단결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5. 결론—일본의 내셔널리즘과 일본현대문학자의 대응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이후 급격히 강화되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일본현대문학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어떻게 저항하였는지, 또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어떻게 관철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27) 고병국(2000) 『이시하라 신타로』 『민족연구』 5호, 한국민족연구원, p.166

일본 현대문학자들의 내셔널리즘과 우경화에 대한 대응양상을 분명히 함으로써, 일본의 내셔널리즘에 대한 다면적 접근은 물론, 일본 내에서 1980년대 이후 그 논의가 뜬해진 현실정치와 문학의 관계를 파악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1990년대 이후 일본의 민족주의 고양과 우경화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일본 우경화에 공통하는 현상은 과거 제국주의 침략을 합리화하는 역사인식에 기인하고 있으며 미국에 의해 주어진 평화헌법을 초월하고자하는 대외팽창적인 자세에 그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주의가 일본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1990년대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으로 표현되는 일본의 경제불황과 이로 인한 포퓰리즘과 내향의식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다음으로는 또한 일본의 민족주의와 우경화에 대해 일본의 현대작가들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와 『태양의 계절』(太陽の季節)의 작가, 이시하라 신타로(石原眞太郎)를 통해 고찰하였다.

이른바 전후민주주의자를 자처하는 오에 겐자부로의 경우는 한결같이 전전(戰前)의 천황제를 비판하며, 일본제국주의를 합리화하려는 그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적 자세를 취하였다. 오에 겐자부로는 일본의 내셔널리즘과 우경화에 저항하고자 하는 토대는 바로 일본의 전쟁책임이라는 역사적 인식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만들어진 평화헌법 정신에 토대해 있으며, 전후민주주의에 입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대응의 방식은 바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시민 연대를 통한 문제해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아시아에 있어서 내셔널리즘 극복의 방식으로 동아시아 문화 공동체를 제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인기소설가, 영화배우, 영화감독, 국회의원, 도쿄도지사 등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인 이시하라 신타로는 오에 겐자부로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우경화 흐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선전하는 입장에 있었다. 그는 과거 일본식민지를 적극 미화하며 주변국을 가치 비하함과 동시에, 일본의 왜곡 역사교과서가 일본의 각 학교에 채택될 수 있도록 다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시하라의 인식의 특징은 과거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시각이며, 나아가 항상 강한 일본을 주장하는 그의 주장과 맞물려 배외(排外)주의를 조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극우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시하라



가 일본에서 대중적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1990년대의 경제적 불황에 의한 포퓰리즘과 내향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고찰하였다.

‘9조의 모임’ 등을 비롯하여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반대하는 최근 일본 시민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그러나 일찍이 발언을 하였던 자도 포함하여 문학자, 문화인의 다수는 침묵하고 시민이 반대운동도 정채(精彩)를 결여한 듯이 보인다’<sup>28)</sup>라는 지적이 잘 보여주듯이, 일본 현대문학자를 포함하여 시민사회의 대항은 그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음도 또한 사실이다. 이는 역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의 내셔널리즘, 우경화의 공간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서가 국민적 레벨에서 수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아직 몇 가지의 과제를 남기고 있다. 첫째 오에 겐자부로, 이시하라 신타로 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지만 아직 이들과 직간접적 관계에 놓여 있는 문학자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현대문학자들의 작품세계와 시대적 콘텍스트에 대한 분석이 더욱 필요하다. 이는 다음의 과제로 남겨두도록 한다.

### 참고문헌

- 고도리 요이치(2007) 『기억의 소거와 역사인식』, 고려대·동경대 합동세미나 발표집  
 고병국(2000) 『이시하라 신타로』, 『민족연구』 5호, 한국민족연구원, p.166  
 김태기(2006) 『日本の 保守右傾化와 韓国』, 『한일민족문제연구』 제11호, 한일민족문제학회, pp.306~307  
 \_\_\_\_\_(2007) 『日本 右翼의 思想과 活動에 관한 史的 考察』, 『한일민족문제연구』 제13호, 한일민족문제학회, p.52  
 김호섭 외(2000) 『일본우익연구』, 도서출판 중심, p.21  
 나카하라 게이지(2001) 『『국민의 역사』로 본 우익의 위험한 역사관』, 『철저비판 일본우익의 역사관과 이데올로기』, 바다출판사  
 오에 겐자부로(2007) 『나의 문학과 지난 60년』, 『日本研究』 제7집, 고려대학교 일본학 연구센터, pp.15~16  
 오에 겐자부로·김우창 대담(2006) 『동아시아의 갈등과 반목, 문화공동체 구축만이 해』  
 \_\_\_\_\_  
 28) 川口隆行(2008) 『原爆という問題領域』 創言社, pp.8~9

답이다」, 『대산문화』~Vol.20, p.20

『매일신문』, 「동남아는 韓流, 국내서는 日流」(2007.2.10)

『문화일보』, 「日流 거침없이 분다」(2007.3.1)

『조선일보』, 「韓流, 일본 대중문화에 빨대 꽂고 버틸 수 있나」(2007.3.28)

『한경 비즈니스』, 「진화하는 일본소설」제587호(2007.3.12)

『한국일보』, 「하루키 현상」(2007.3.21)

石原慎太郎(2004) 「陛下、お願いいたします」, 『産経新聞』

石原慎太郎(2006) 「2002年12月26日 定例記者会見」、工藤美代子『石原慎太郎の連隊旗』、  
ワック株式会社、pp.115~116

大江健三郎(1995) 「あいまいな日本の私」、『あいまいな日本の私』、岩波書店、p.9

大江健三郎(1996) 「天皇が人間の声で話した日」、『日本の「私」からの手紙』、岩波書店、  
p.28

大江健三郎(1996) 「希望と恐れとともに」、『日本の「私」からの手紙』、岩波書店、p.53

川口隆行(2008) 『原爆という問題領域』、創言社、pp.8~9

工藤美代子(2006) 『石原慎太郎の連隊旗』、ワック株式会社、p.110

紅野敏郎、三好行雄外編(1976) 『昭和の文学』、有斐閣、p.295

小森陽一(2006) 『ことばの力 平和の力』、かもがわ出版、pp.177~180

小森陽一(2006) 『村上春樹論—『海辺のカフカ』を精読する』、平凡社新書

高橋哲哉編(2002) 『<歴史認識>論争』、作品社、p.2

船橋洋一(2001) 『いま、歴史問題にどう取り組むか』、岩波書店、「はじめに」、p.13

古林尚・佐藤勝編(1978) 『戦後の文学』、有斐閣選書、p.107

『朝日新聞』、2007.3.31

❖ 투고일 : 2008. 6. 30

❖ 심사일 : 2008. 7. 29

❖ 심사완료일 : 2008. 8. 1